



**김제농협, 농협이동상담실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3일 김제농협 여성조합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이동상담실을 개회했다. 이날 열린 이동상담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반 법률 상담과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관계장관을 위한 소통기술 등의 문화교육 강의를 진행했다. 이정용조합장은 "여성 농업인이 현장에서 전문기술을 만나 생활 속 불편함과 고충을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고충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농촌현장으로 찾아가 교육하고 상담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김제=곽태 기자

**제12회 한중일 시각장애인테니스대회 성료**

우석대학교가 주관하고 (사)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이 주최한 제12회 한·중·일 시각장애인테니스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B1·B2·B3·오픈 부문으로 나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주캄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중·일 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소속 선수와 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B1 부문에서 시오자와 하루후미(일본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와 조유나(전북맹아학교) 선수가 B2에서는 임이삭(전북맹아학교)과 후지모토 유야(일본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B3에서는 맹한영(대한인파시합회 전북지부)과 스즈키 히로미(일본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선수가 오픈 부문에서는 김민서(우석대학교) 선수가 1위에 올랐다. 한편 시각장애인테니스는 일본의 시각장애인인 다케이 미요시 씨가 소리가 나는 특수 공을 개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현재 중국과 일본·영국·스페인 등 21개 국가에 보급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취약계층 에너지 홀더터 추진**

남원시가 해마다 발생하는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난방시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170가구)을 대상으로 에너지 홀더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과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의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보일러 상태에 따라 수리 수선·부품 교체·배관청소 등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기준액은 6만2천원이며, 가구별로 보일러 상태가 상이한 만큼 기준액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대상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과 보일러 사용환경이 열악한 산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전년도에 이미 해당 사업을 통해 보일러 점검을 받은 가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및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7월부터 11월까지 점검업체가 신청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에게는 보일러 사용 전 점검을 생활화 하여 보일러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여름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 사 전차단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일 단속을 시작으로 휴가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고수면 문수계곡을 찾아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더위를 해소하고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작년 대비 고창 내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플래카드 등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여름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서지는 물론 주요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에 단속을 펼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것이 LA올림픽 복싱 금메달”**

신준섭 1984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금메달·복싱 가운·월계관 등 전복체육회에 기증

복싱계의 전설인 신준섭 1984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의 금메달과 복싱 가운 등이 일반인에 공개된다. 한국 체육 영웅이자 전복 체육의 전설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39년간 고이 간직하고 있던 체육 소장품을 전라북도체육회에 전달했다. 우리나라 복싱 최초이자 전복 출신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 사무처장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금메달과 당시 입었던 복싱 가운 월계관 성화봉 등의 소중한 체육 유물을 3일 도체육회에 기증했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고등학교때 복싱을 시작한 신 처장은 당시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크게 주목 받았던 선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복싱에 대한 열정과 피나는 노력 끝에 1983년 로마 월드컵 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금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84년 국가대표로 LA올림픽 복싱 마블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결승전에서 미국의 버질 힐과 만나 일대 접전을 펼쳤고, 3대2 판정승을 거두면서 전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했다. 신 처장이 기증한 메달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XXIII OLYMPIAD Los Angeles 1984라 선명하게 양각돼 있다. 또한 결승전 판정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는 동안 입고 있었던 파란색에 노란색 줄이 있는 가운은 신준섭이라고 적혀져 있고 뒷면에는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KOREA'라 쓰여져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 우승자, 전장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등에게 명예의 상징으로 만들어 씌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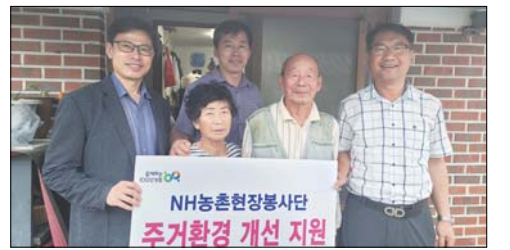


월계관은 금속 재질에 금박을 입힌 형태이며 나뭇잎 하나하나 조각돼 만들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성화봉은 196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사용됐던 것으로 당시 신 처장이 성화봉을 주자로 참여했다. 신준섭 사무처장은 “도 체육회 처장으로서가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유물을 기증한 것”이라며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체육 스타, 원로 체육인, 현역 선수들 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체육 유물 기증 빌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체육역사기념관이 원활히 건립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준섭 처장의 기증식에 이어 도 체육회 정소영 이사도 소장품을 전달하면서,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이자 아시안게임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정 이사는 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라켓과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메달 등을 기증했다. /뉴스



**정읍농협·시지부 농촌봉사단, 주거환경개선 지원**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과 농협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3일 정읍시 진산동과 교안동에 거주하는 돌봄 농가 2가구를 찾아 노후화된 싱크대와 찬호 교체 및 집안 청소 등을 도우며 취약농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위해 농업인행복센터(1522-5000)상담과 NH농촌현장봉사단의 현장 확인을 거쳐 이루어졌다. 도움을 받은 김모(73) 농가는 “노후화된 싱크대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는데 농촌현장봉사단의 도움으로 깨끗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농협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남영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돌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어르신 등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농협은 NH농협현장봉사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순창지부·서순창농협, 주거환경 개선 지원**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와 서순창농협(조합장 설득환)은 NH농촌현장봉사단과 함께 지난날 27~28일 양일간 순창군 금과면과 북흥면에 위치한 취약계층 및 고령농가 대상으로 정관교체와 벽체 도배로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은 “정관과 벽지를 교체할 업무가 나지 않았는데, 농협이 내 일처럼 교체해주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협은 “NH농촌현장봉사단을 통해 어르신과 고령농가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득환 조합장은 “농촌지역 어르신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려 뿌듯하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노후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고령농가를 위해 농업인행복센터(1522-5000)의 상담과 NH농촌현장봉사단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순창=이양일 기자



**비전대, 원격교육 활성화 성과확산 공유회**

전주비전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지난 6월30일 전북권역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과확산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과확산공유회는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 지역 대학 원격교육 관계자들과 교류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영임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의 발표로 3차년도 전북권역 성과 4차년도 추진 현황 공유, 학점교류 교과목 우수사례 공유(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원격교육 활성화와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앙센터로 지정해 전북권역을 포함한 10개의 권역센터를 선별해 권역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북권역에는 전북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가 컨소시엄 전문대학으로 선정됐으며, 권역 내 16개 대학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영임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이번 성과확산공유회가 전북권역 원격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15대 박경수 서장 취임**

전주완산소방서는 제15대 전주완산소방서장으로 박경수 서장이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박경수 서장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03년 간부 제12기로 소방에 입문 이후 전주대진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전북소방본부 기획예산팀장, 방호예방과장, 정읍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세계유산도시 기념행사 성료**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기념' 축하 행사를 지난 1일 저녁 고창읍성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행사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무형유산의 추가 등재를 축하하고, 국내유일 세계인이 인정한 7가지 보물을 보유한 세계유산도시로 도약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고창 대표 국악무지컬인 '이랑·소리꽃' 공연을 시작으로 전문무용수들과 관광객, 군민이 함께 어울어져 선보인 7가지 보물 등재 축하 퍼포먼스는 장관을 연출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장수 크로스오버 그룹인 포레스텔라(Forestella)가 유네스코 추가등재와 세계로 뻗어가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화려한 음악과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우리의 세계유산을 전세계



에 알리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대 학군단, 2023년 하계입영훈련 출정식**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제155학생군사교육단은 3일 하계입영 훈련을 위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에 나선다. 이날 오전 문무관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이장호 총장이 참석해 장비와 무더위의 악조건 속에서 고된 훈련을 받게 될 후보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하계 입영 훈련에는 총복 과신에 위치한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총인 48명중 A조로 편성된 62기 학군사관후보생 18명이 참여하며, 총 4주간 동안 4학년 후보생들의 장교로 임관하기 전, 분·소대 전투지휘 능력을 검증하는 마지막 훈련이다. 이장호 총장은 “하계입영 훈련을 통해 초급장교에게 필요한 인성·체력, 전투기술 등을 연마하여 올바른 유능한 장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제5회 정읍시장배 줄넘기대회, 성황리 마무리**

‘제5회 정읍시장배 전라북도 줄넘기대회’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후원하고 정읍시 줄넘기협회(회장 박재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등 타 시·군에서 참여한 250여명의 선수가 열린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초·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개인전은 양발포아뛰기, 30초 빨리뛰기, 30초 이중뛰기, 단체전은 4인 스피드릴레이, 8자 마라톤 종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합우승은 정읍 두란노줄넘기클럽, 준우승은 정읍 나래줄넘기클럽, 종합우위는 정읍줄넘기클럽이 차지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